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정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43,16-21

제2독서: 필리 3,8-14

복음: 요한 8,1-11

가톨릭 성가 입당: 118

봉헌: 443

성체: 179

파견: 119

◆ 화답송



(후렴)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기를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산 짐승의 교훈”

산짐승들은 사냥꾼이나 다른 짐승들과의 싸움에서 상처가 나면 재빨리 산속 가장 깊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 상처가 낫기 까지 머무르는데 반해 사람은 가장 먼저 상처를 준 사람을 찾느라 더욱 상처를 키운다고 한다.

공동체 여기저기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평화로웠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성당에 와도 상처를 입힌 말들과 사람들만 보인다며 힘들어한다.

“저 사람은 나서기를 좋아해, 신부님한테 귀여움 떠는 것 좀 봐, 저래가지고 성당은 왜 다니나 몰라...”

오늘 복음은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돌을 내려놓는가하면, 돌 맞아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여인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소개한다. 참 예쁜 복음의 장면이다. 처벌을 해야 할 이도, 처벌받아야 할 이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 그 끝을 달리하니 말이다.

우리들 살아가는 자리에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전통이나 규범들을 기준삼아 처벌하려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복음의 후반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혹시 우리들 공동체의 자화상은 아닐까?

그리스도인들도 상처를 입는다. 마음이 여리고 선한 의지들이 있기에 누구보다 더 쉽게 그리고 많이 상처를 받는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었는가? 상처를 준 이들을 찾을 겨를도 없이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산짐승처럼 조금씩 상처의 내용과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 안에 머무르며 상처가 치유되길 청해보자 ♠

(성경맛들이기 계속)

내용

모두 50장인데,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11장에는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관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쓰여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 역사 또는 태고사라 한다.

천지창조 이야기

하느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상을 가꾸도록 맡기셨지만, 인간이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겨 낙원에서 쫓겨났다(1,1-3,24).

카인 이야기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등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커져간다(4,1-5,32).

노아와 대홍수 이야기

세상이 타락하여 하느님께서 대홍수로 인류를 멸하셨으나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려 주셔서 인류가 다시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셨다(6,1-10,32).

바벨탑 이야기

인류가 하느님께 도전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기에 하느님은 세상의 말을 뒤섞어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이렇게 해서 원역사의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11,1-9).

12-50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조사 또는 족장사라고 한다.

아브라함 이야기

야훼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손을 번성케 하며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고향과 친척을 떠났기에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다(12,1-25,18).

이사악 이야기

성조사에 계속해서 흐르는 주제는 후손의 번성과 땅을 차지하리라는 내용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느님의 약속으로 이사악은 약속의 자녀라 불린다(26장).

야곱 이야기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경위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야곱 이야기에서 부각되는 주제는 땅이나 후손에 대한 약속보다 '복'이다(25,19-34 ; 27,1-36.43).

요셉 이야기

요셉을 통하여 성조 야곱과 그 자손들이 이집트에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선택된 민족의 형성과 이집트 탈출을 준비하고 연결하는 구원사가 전개된다.(37,1-50,26).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대한인쇄 KOR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광고주를 찾습니다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4월 7일	주세정 레이첼	박태준 베네딕토	김은희 에스텔	황세유 투카스	이지연 안나레지나	김가연 광성희	홍원표 홍 찬	김승애 신정목 이경자(울) 김효진 이경자(벨) 이서원 강호영 이경숙
4월 14일	홍민철 안첼로	박종섭 요한	정유진 콘술시아	-	김보희 클라라	김영건 여다원	한창희 김우현 김진섭 한채희	장혜윤 박정자 채미재 이영혜 신윤길 신애송 박기묵 박민재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4월 친교실 봉사는 성모회입니다.

➢ **울뜨레아**가 11시, 교육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 **학부모회**가 11시, 교육관 3호실에서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 4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10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오후 1시30분~2시50분	

➢ 사순절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 시작 및 주관단체 : 오전 9시, 윗 성당

오늘	울뜨레아
4/14	성령기도회/양업회

➢ 성삼일과 부활 성야 전례 안내

- 주님 만찬 성 목요일(4월 18일) : 밤 8시 윗 성당
- 주님 수난 성 금요일(4월 19일) : 밤 8시 윗 성당
- 파스카 성야(4월 20일) : 밤 9시 윗 성당

☺ 부활 성야 미사 중에 세례 및 견진 예식이 있습니다.

➢ 2019년 제21회 나눔의 바자회

일정 : 5월 19일(부활 제5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Broadway Btn31/32st, Korea Town

문의 : 추진위원장 유기호 베네딕도 (914.787.0508)

후원금 접수 : 친교실 재무팀 데스크

☆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판매용 헌 옷은 깨끗이 빨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 바자회 추진 위원 회의

일시 : 오늘 11시

장소 : 코리안 컨퍼런스 룸

➢ 미동북부 여성 제37차 꾸르실료 교육피정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일시 및 장소 : 4/25 ~ 28일(3박 4일), 뉴튼 수도원

주관 : 동북부 울뜨레아 사무국(지도: 박홍식 신부)

문의 : 신부님, 김승애 클라라(봉사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 순종, 사랑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그분과의 귀한 만남으로 가톨릭 신자로서 단 한번 만 주어지는 교육피정입니다.

여성 꾸르실료는 매년 4월, 남성은 10월에 각각 있습니다.

➢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4.11 쟼마 4.14 리드비나 4.21 안셀모

4.25 마르코 4.16 벨라렛다 4.29 카타리나

➢ 청년성가대 <처음처럼> 제3회 성가발표회

청년성가대에서 "LAUDATE DOMINUM"

(부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을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4월 27일(토) 저녁 7시 30분, 윗 성당

이번 프로그램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장르의 성가들과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기도모임에 초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코리안 컨퍼런스룸

주제 : 남북통일, 한인 공동체, 개인 어려움

많은 분들이, 남북통일, 한인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어려움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 제 64차 맞춤형 성령 세미나 참가 안내

일시 : 4월 26일(금) 오전 9시~28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174 Filors Lane, Stony Point, New York 10980)

선착순 45명 / 4월 15일(월) 신청마감

참가비 : 300불/1인당

신청문의 : 성령기도회나 김영희 안나(347.665.6696)

➢ 제 73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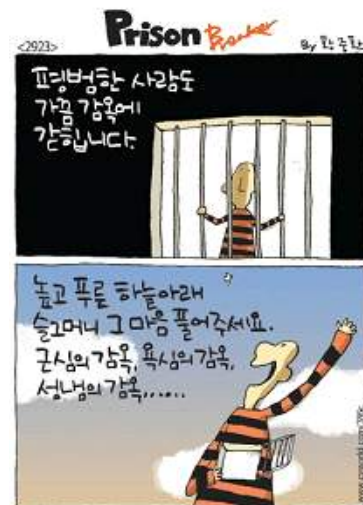
일시 : 5월 25일(토) 오후 7시~27일(월) 오후 5시

장소 : Double 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ew Jersey

문의 및 신청 : 박기목 알버트, 박민재 아그네스 부부

(646.201.0175 / 646.808.7322)



“성경 맞들이기” - 창세기

창세기는 구약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다.

- .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사람은 또 어떻게 있게 되었나?
- . 이스라엘 민족과 하느님과 어떤 관계이며 언제부터 그 관계가 시작 되었나?
-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야기들이 쓰여 있다.

‘창세기’라는 성경 이름

유대인들은 그 책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로 책의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브레싯’(한 처음에)이다. 기원전 2세기경 구약성경을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옮긴 70인역 성경에서는 책의 내용을 따라 창세기에 ‘게네시스’(기원, 시작)라는 이름을 붙였다. 우리말 성경 이름 ‘창세기’는 70인역 성경 이름에 따라 지어진 중국어 성경에서 유래한다.

집필연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부족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들과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문헌들을, 바빌론에 유배(기원전 6세기경)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종합하여 정리했다.

저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오경을 모세가 직접 썼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학자들은 오경이 여러 사람에 의해 쓰이고 모아졌다고 밝힌다. 흔히 오경을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 이유는 내용이 모세를 중심으로 쓰였고 하느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십계명을 뺀 모든 율법이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집필 목적

우주와 인류의 기원, 그리고 기원전 18-19세기경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체험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쓰였다.

창세기를 쓴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빌어

- .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 . 인간의 죄로 인해 하느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
- . 그럼에도 하느님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구원하고 계심을 알려 주고자 한다.

(이어집니다)

◆ 미 사 봉 헌

● 연미사	봉헌
민병택 베드로	가족,성모회,이병량,한정진,경프란치스코
이준석	김종화필립보 부부
이영우, 이태모	이상홍 스테파노
곽순희 사비나, 강주옥 소피아	가족, 익명
손순연	경 프란치스코
권의숙	김지원
● 새미사	
표해심 카타리나	성모회, 채미재 마리아
꾸르실료 봉사자와 수강자	울뜨레아
김성인 신부	필 미카엘라
필부국 그레고리오	필 미카엘라
필부영 크리스티나	필 미카엘라
임노엘 루카	임유진 라자로
베티 산드라 레쉬맨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이규완안토니오,이은경헬렌부부	박 알버트, 아그네스부부
김세호, 김진호	방윤미 마리스텔라
이관형프란치스코,차정환베드로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1,210
감사헌금	\$ 410
합 계	\$ 1,420

교무금 :
백승훈 박기목 김성모 노혜영 오지연 황인자
고은경 안선정 김승한 이영숙 이경숙 유승진
진승환

감사헌금 :
백승훈 김민정 박명심
성모회 요셉회

꽃봉헌 : \$40
배인순 노혜영